

중동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동향 -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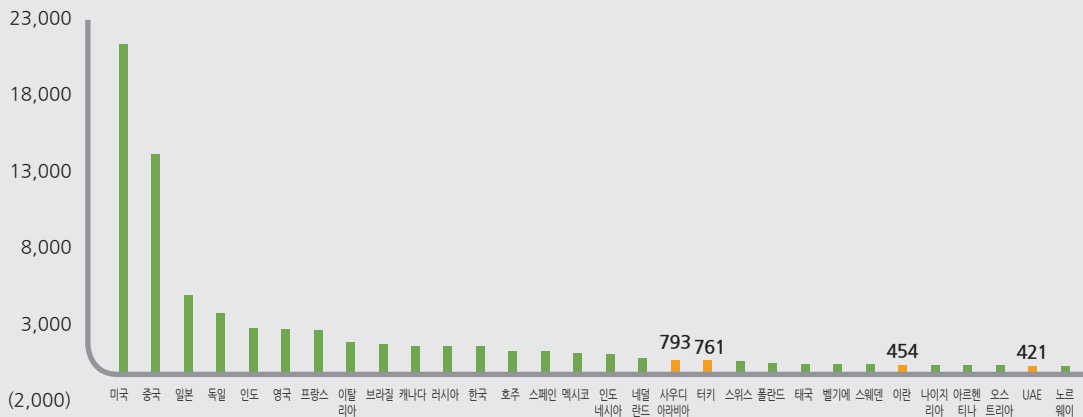
김지현 대표 비티인사이트(B.T.Insight)

☑ 중동 시장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GDP 규모는 2010년 2조 7,680억 달러에서 연평균 3.1% 성장해 2019년 기준 3조 6,500억 달러로 남아시아(3조 5,920억 달러)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조 7,670억 달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 국가 GDP 규모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7,930억 달러로 세계 18위, 터키가 7,614억 달러로 세계 19위, 이란이 4,540억 달러(2018년 수치)로 세계 25위,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이 4,211억 달러로 세계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¹⁾의 6개 산유국의 GDP가 1조 6,395억 달러로 한국의 GDP(1조 6,467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동 북아프리카의 인구는 2019년 기준 4억 5,671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²⁾

- 1)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는 페르시아만 인근 6개 아랍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1981년 결성한 국제 경제협력체임.
- 2)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country>) 및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2019."

[그림 1] 2019년 GDP 상위 30개 국가 (단위: 십억 달러)



출처: World Bank (이란은 2018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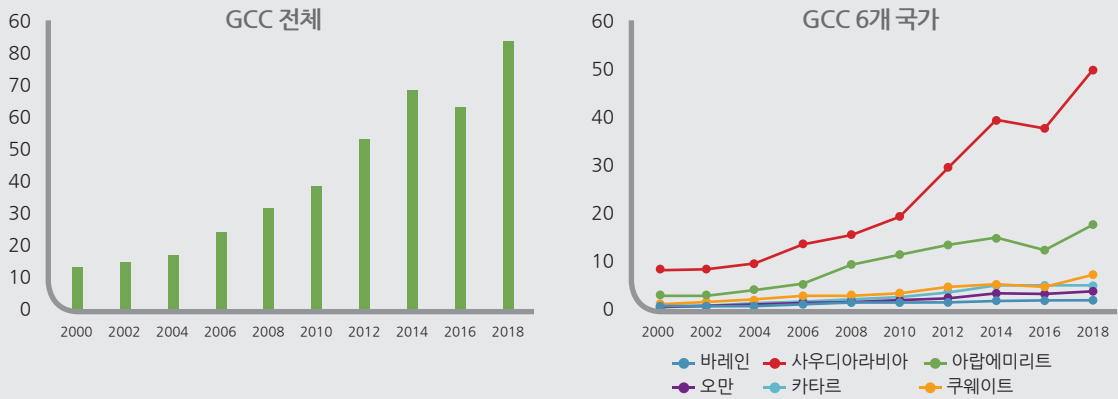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을 통해 높은 소득을 누리는 한편 자원을 통해 획득한 재원을 경제개발에 투자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유가 변동 및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로 2010년 이후 경기변동이 컸고 2020년 코로나19의 타격으로 -5.7%(IMF 2020년 10월 전망치)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지만 2021년 경기 회복에 따라 3.2%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³⁾

중동 헬스케어 시장 규모

- 3) KOTRA(2021)
- 4)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소비를 의미함.
- 5)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GCC 국가의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⁴⁾는 2000년 127억 달러에서 연평균 11.1% 증가해 2018년 842억 달러를 기록했다. GCC의 모든 국가가 연평균 9%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카타르가 연평균 15.5%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쿠웨이트가 11.8%, UAE가 11.5%로 뒤를 이었다.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가 500억 달러, UAE가 175억 달러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80억 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⁵⁾

[그림 2] GCC 국가 경상의료비 (2000년 ~ 2018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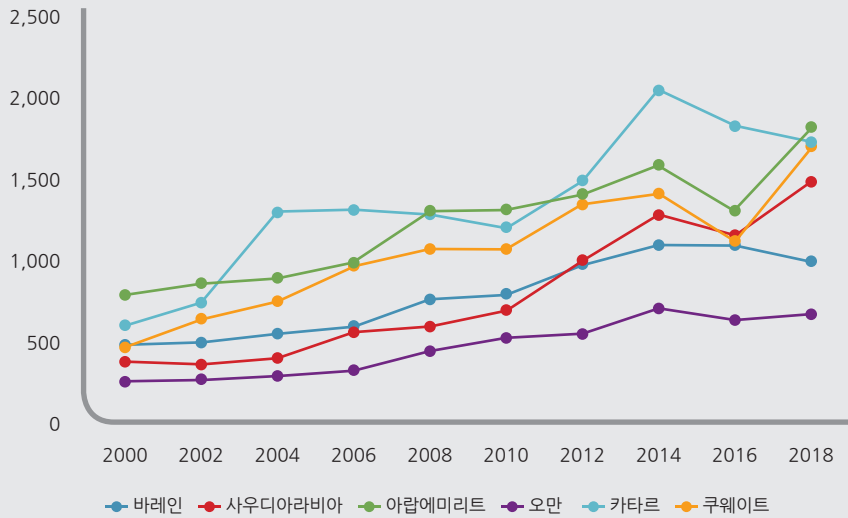


| 구분 | 2000 | 2002 | 2004 | 2006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연평균 증가율 |
|---------|------|------|------|------|------|------|------|------|------|------|---------|
| GCC 전체 | 12.7 | 13.9 | 16.7 | 23.8 | 31.4 | 38.5 | 53.4 | 68.7 | 63.5 | 84.2 | 11.1% |
| 바레인 | 0.3 | 0.4 | 0.5 | 0.6 | 0.8 | 1.0 | 1.3 | 1.5 | 1.6 | 1.6 | 9.1% |
| 사우디아라비아 | 8.0 | 8.1 | 9.3 | 13.6 | 15.4 | 19.3 | 29.6 | 39.5 | 37.6 | 50.0 | 10.7% |
| UAE | 2.5 | 3.0 | 3.6 | 5.2 | 9.2 | 11.2 | 12.8 | 14.6 | 12.2 | 17.5 | 11.5% |
| 오만 | 0.6 | 0.6 | 0.7 | 0.9 | 1.2 | 1.6 | 2.0 | 2.9 | 2.9 | 3.3 | 9.9% |
| 카타르 | 0.4 | 0.5 | 1.0 | 1.3 | 1.8 | 2.2 | 3.3 | 5.0 | 4.8 | 4.8 | 15.5% |
| 쿠웨이트 | 0.9 | 1.4 | 1.6 | 2.3 | 2.8 | 3.2 | 4.5 | 5.2 | 4.4 | 7.1 | 11.8% |

출처: WHO

동기간 GCC 국가들의 1인당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연평균증가율은 4% 이상이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7.8%, 쿠웨이트가 7.5%로 연평균 7% 이상의 빠른 증가를 했다. 1인당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8년 기준 UAE가 1,817.3달러, 카타르가 1,716.3달러, 쿠웨이트가 1,711.2달러로 1,700달러 이상인 반면 바레인인 994.2달러, 오만은 678.2달러로 큰 편차를 보였다.

[그림 3] GCC 국가 1인당 경상의료비 (2000년 ~ 2018년) (단위: 달러)



| 구분 | 2000 | 2002 | 2004 | 2006 | 2008 | 2010 | 2012 | 2014 | 2016 | 2018 | 연평균 증가율 |
|---------|-------|-------|---------|---------|---------|---------|---------|---------|---------|---------|------------|
| 바레인 | 485.7 | 503.0 | 550.4 | 591.3 | 757.7 | 796.3 | 971.4 | 1,101.3 | 1,098.9 | 994.2 | 4.1% |
| 사우디아라비아 | 386.3 | 369.5 | 400.9 | 556.1 | 596.5 | 702.7 | 1,014.7 | 1,279.0 | 1,160.0 | 1,484.6 | 7.8% |
| UAE | 787.0 | 857.9 | 894.5 | 974.5 | 1,303.1 | 1,314.6 | 1,403.5 | 1,588.3 | 1,298.1 | 1,817.3 | 4.8% |
| 오만 | 263.5 | 274.4 | 301.3 | 333.2 | 445.5 | 529.1 | 559.0 | 710.0 | 637.2 | 678.2 | 5.4% |
| 카타르 | 602.1 | 742.3 | 1,295.1 | 1,311.7 | 1,283.8 | 1,206.0 | 1,487.3 | 2,041.6 | 1,822.4 | 1,716.3 | 6.0% |
| 쿠웨이트 | 463.9 | 637.4 | 744.8 | 964.0 | 1,072.8 | 1,063.6 | 1,337.7 | 1,409.1 | 1,114.6 | 1,711.2 | 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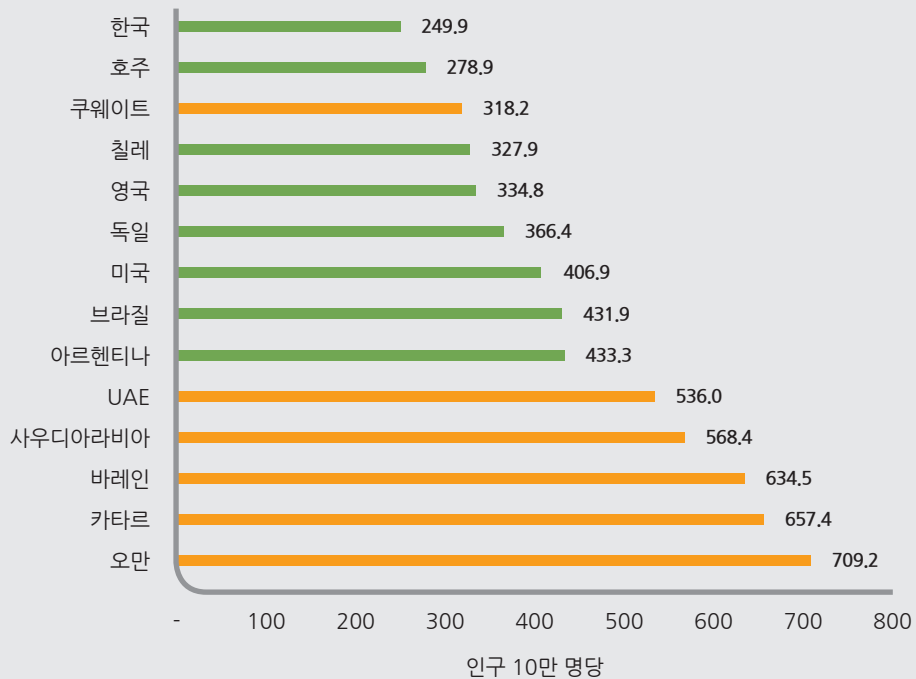
출처: WHO

중동 헬스케어 시장 동향 및 전망

중동 지역에서의 헬스케어 수요는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확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GCC 6개국 인구의 경우 2013년 이후 연평균 2.7% 증가해 2018년 5,700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는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와 출생 시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의 증가 (2018년 기준 77.2세)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50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6.7%로 20~49세 인구(연평균 2.4%)와 0-19세 인구(연평균 1.2%)를 크게 앞서고 있다. GCC 지역에서는 움직임이 적은 생활스타일과 나쁜 식이습관으로 당뇨병과 비만이 풍토병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GCC 지역의 비전염성 질환(NCDs, noncommunicable diseases) 즉 만성질환 연관 사망률은 10만 명당 570.6명으로 독일(366.4명)이나 미국(406.9명) 등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431.9명)이나 아르헨티나(433.3명) 등 중남미 개발도상국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생활습관에서 비롯하는 문제를 인식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예방의료 모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⁶⁾

6) Alpen Capital(2020); WHO, "Total NCD mortality rate (per 100 000 population), age-standardized."

[그림 4] 비전염성 질환 사망률 (2018년) (단위: 명)



출처: WHO

중동은 급증하는 수요에 반해 헬스케어 인프라 부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GCC 지역은 정부 지출과 더불어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로 2017년 기준 742개 이상의 병원(의원 제외)과 그에 따른 106,692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비율이 24.6%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부터 5년간 17,128개의 병상이 추가된 결과지만 GCC 지역 평균 병상밀도는 1,000명 당 1.9개로 여전히 OECD 평균(4.7개)은 물론 미국(2.9개)이나 영국(2.5개), 싱가포르(2.5개)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⁷⁾

의료인력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17년 기준 GCC 지역은 인구 1,000명 당 5.7명의 간호사와 2.9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의사의 밀도는 영국(2.7명)과 독일(4.3명), 미국(3.4명) 등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간호사의 밀도가 영국(8.2명)과 독일(12.0명), 미국(14.5명) 등 선진국들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GCC 국가들은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헬스케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인 고용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교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⁸⁾

헬스케어 수요 확대와 인프라 및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향후 중동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그간 국가 재정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부문을 이끌어온 중동 지역 정부들이 의무건강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급증하는 헬스케어 비용을 개인 및 고용주, 보험사로 이전시키고 있다. 의무건강보험제도가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 힘입어 GCC 지역의 건강보험시장은 2019년 기준 13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헬스케어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이 병원 및 의원, 검사실 등을 확충하는 계획들을 내놓고 있다. GCC 지역은 현재 총 532억 달러 규모의 161개로 추정되는 헬스케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 40,326개의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프로젝트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9.2%로 가장 높고 쿠웨이트가 12.9%, UAE가 10.3%, 오만이 2.1%로 뒤따르고 있다.¹⁰⁾

중동 국가들은 최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민간 부문 투자의 확보를 위해 PPP 프로젝트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두바이 보건청(Dubai Health Authority)이 2015년 공표된 PPP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관련 PPP 프로젝트 도입 논의를 시작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PPP 프로젝트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법안 초안을 발행한 상태다.¹¹⁾

7) Alpen Capital(2020)

8) Alpen Capital(2020).

9) Alpen Capital(2020).

10) Alpen Capital(2020).

11) Alpen Capital(2020); 하지원(2019).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가 뒷받침돼야 한다. 중동 지역 의사들은 아직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의료시장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국제인증 취득 등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

하다.¹²⁾ 최근 국내 의료서비스의 수출 확대와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은 국내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중동환자 수는 2009년 6만여 명에서 빠르게 증가해 2017년 3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동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응해 한국의 대형병원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 민간병원이 중동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¹³⁾

ICT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인 “헬스커넥트”의 사례는 의료시스템의 수출을 바이오헬스 솔루션 수출의 기회로 삼은 좋은 사례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UAE에 246병상 규모의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며, 쿠웨이트의 뉴자흐라병원도 위탁 운영할 예정인데 이 병원들에는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헬스커넥트”의 병원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헬스커넥트”는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방위부 산하 병원에도 개입 건강기록 솔루션을 수출한 바 있다. “헬스커넥트”는 2021년 UAE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향후 중동 시장에 비하면 의료와 디지털치료제,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판매할 예정이다. “헬스커넥트”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나 중동과 같은 규제가 덜한 해외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흥미로운 사례다.¹⁴⁾

12) KOTRA(2019).

13)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2019); KBS NEWS(2017)

14) 전자신문(2021); 한국무역협회 중동 지역본부(2019); KBS NEWS(2017)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만성질환 등 중동 지역의 주요 질환을 타깃으로 한 솔루션이나 원격의료와 같이 중동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은 국내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자료 >

1. 전자신문, 2021, “헬스커넥트, UAE법인 설립 완료...중동 디지털 헬스 시장 ‘정조준,’” (전자신문, 2021-05-24)
2. 하지원, 2019,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부문 동향,” · 전문위원 Insight (KOHES, 2019-08-30)
3. 한국경제, 2020, “SKT의 디지털 헬스케어 집념...10년 만에 글로벌 본격 공략,” (한국경제, 2020-03-11)
4. 한국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2019, 對GCC 의료서비스 시장 동향 및 진출 시사점.
5. Alpen Capital, 2020, GCC Healthcare Industry.
6. Arab Health, 2019, Healthcare & general services in the GCC. Informa Markets.
7. KBS NEWS, 2017, ““한국 의료 기술 최고!”...중동 환자들 ‘엄지 척,’” (KBS NEWS, 2017-08-13).
8. KOTRA, 2019, “UAE 의약품 시장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2019-10-18)
9. KOTRA, 2021, 「2021 권역별 진출전략 중동」, KOTRA.

Writer

김지현

비티인사이트(B.T.Insight), 대표
e-mail: jkim@btinsight.co.kr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1년 7월 | 발행인 : 고한승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 Business



9 772508 681005
ISSN 2508-6812